

BS경제인사이트

BS 금융경영연구소

NO. 2015-03

(2015년 3월)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김성주 부소장 (sjkim22@bsfng.com)

송정현 연구위원 (jhsong@bsfng.com)

2015년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의 부산 개최로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남미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주된 시장인 미국 경제 상승세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2대 강국뿐 아니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신흥 3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현재 동남권의 대중남미 수출품목 1위는 자동차, 2위는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위는 자동차부품이다. 앞으로도 중남미의 자동차 시장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개척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남미와의 상호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하여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간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주개발은행(IDB) 부산 총회 개최

2015년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의 경제부처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 금융인, 기업인 등이 대거 참가하는 회의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관련 역대 최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IDB는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1959년 설립되었다. 세계 4대 지역개발금융기구¹⁾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IDB는 현재 48개 회원국(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는 2005년 3월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한 한국의 IDB 가입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주개발은행 회원국 현황

역내(28개국)	역외(20개국)
아르헨티나(Argentina) 바하마(Bahamas)	한국(Korea) 오스트리아(Austria)
바베이도스(Barbados) 벨리즈(Belize)	벨기에(Belgium) 중국(China)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크로아티아(Croatia) 덴마크(Denmark)
캐나다(Canada) 칠레(Chile)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독일(Germany) 이스라엘(Israel)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에콰도르(Ecuador) 엘살바도르(El Salvador)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포르투갈(Portugal) 슬로베니아(Slovenia)
아이티(Haiti) 온두라스(Honduras)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자메이카(Jamaica) 멕시코(Mexico)	스위스(Switzerland) 영국(United Kingdom)
니카라과(Nicaragua) 파나마(Panama)	
파라과이(Paraguay) 페루(Peru)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수리남(Suriname) 미국(United States)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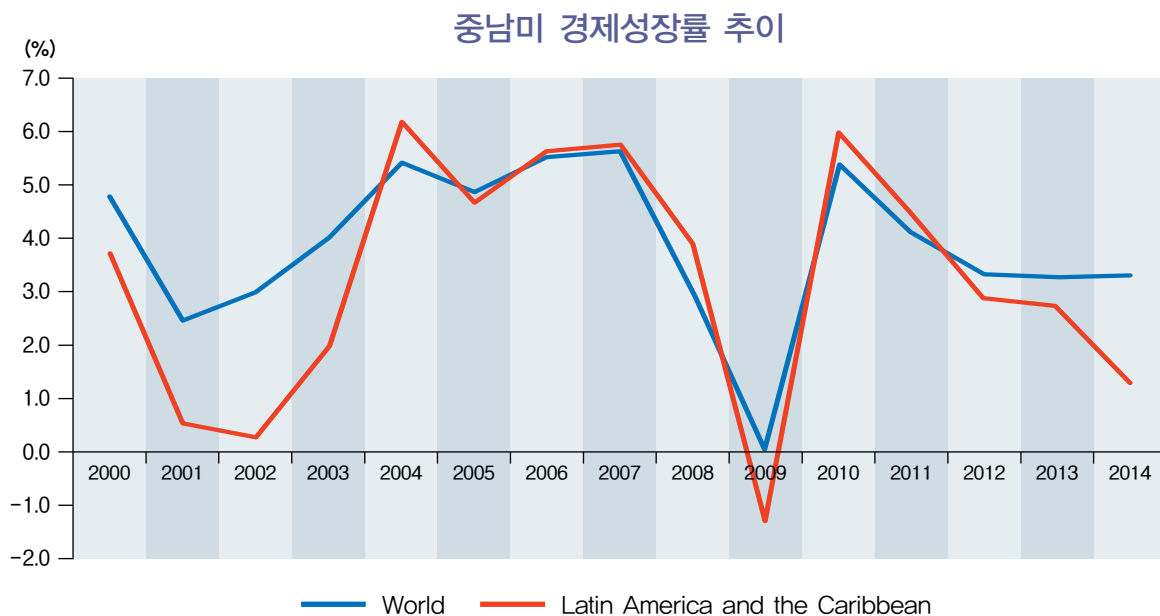
자료 :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을 비롯한 ADB(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을 말한다.

위기가 반복되는 중남미 경제

중남미 경제는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극심한 경제불황을 겪다가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다시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중남미 경제규모는 2000년 세계 GDP의 6.7% 비중을 차지하며 아시아(6.9%)와 비슷한 수준에 있었지만 2014년 7.4%로 소폭 확대되는데 그쳐 아시아(19.2%)의 성장세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경제위기의 반복은 원자재 농산물 등 1차산품 위주의 취약한 수출구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및 국내저축 부족에 따른 높은 해외자본 의존도,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 등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중남미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6억명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경제성과 차별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4.10)

중남미 2대 강국 및 신흥 3국 성장세 기대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은 브라질과 멕시코이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2014년 중남미 GDP에서 각각 39.1%, 22.6% 비중을 차지하며 중남미 경제를 대표하는 양강(兩強)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브라질의 GDP 규모는 2000년 대비 2014년 3.5배 증가하였으나 멕시코는 1.9배 증가에 그쳤다. 이는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멕시코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²⁾

한편 동기간 GDP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에콰도르 5.3배, 페루 4.1배, 콜롬비아 4.0배, 칠레 3.4배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르헨티나 및 베네수엘라의 성장세는 부진하였다.

중남미 10대 국가 GDP 규모

(십억달러, 배)

구 분	2000년(A)	2014년(B)	증감(B/A)
브라질	645	2,244	3.5
멕시코	684	1,296	1.9
아르헨티나	340	536	1.6
콜롬비아	100	400	4.0
칠레	78	264	3.4
베네수엘라	118	209	1.8
페루	51	208	4.1
에콰도르	19	100	5.3
도미니카공화국	26	62	2.4
과테말라	17	58	3.4
중남미 전체	2,205	5,733	2.6

주 : 경상 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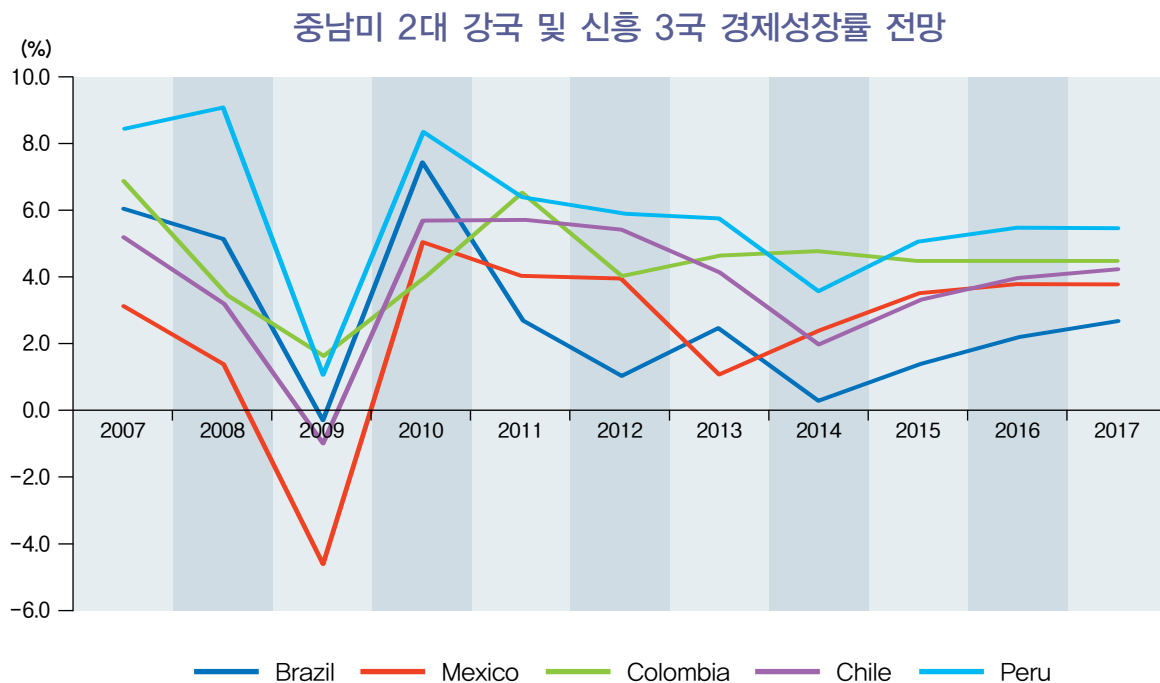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4.10)

2) 브라질과 멕시코의 수출의존도(수출/GDP, 2013년 기준)는 각각 10.8%, 30.1%로 파악되었다.
특히 멕시코는 대미국 수출비중이 78.8%에 달하여 미국 경기침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IMF는 2014년 1.3%를 기록했던 중남미 경제성장률이 2015년 2.2%, 2016년 2.8%, 2017년 3.1%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세가 둔화된 멕시코 경제가 미국경제의 상승세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경제도 원자재 수출시장의 여건 개선 및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투자확대,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5%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콜롬비아 칠레 페루 신흥 3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급락세를 보였던 원유 금속 곡물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미국 등 주력 수출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긍정적 경기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인프라 건설투자 확대 및 정치·사회적 개혁의지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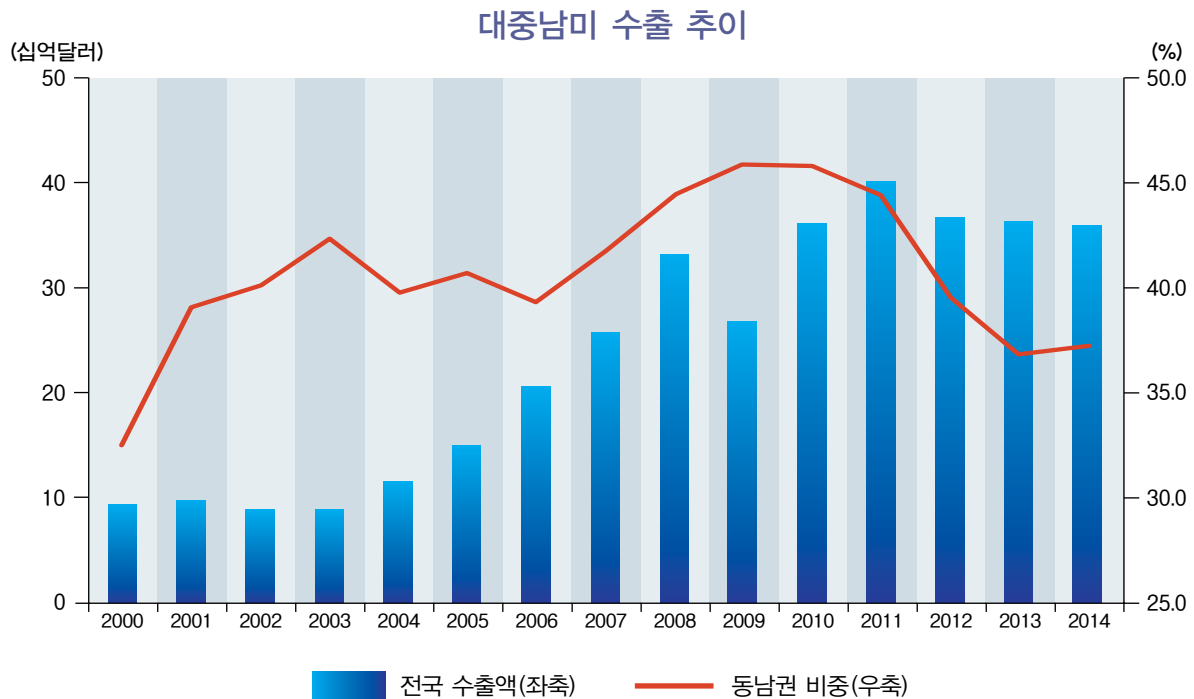
주 : 2015년~2017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4.10)

대중남미 수출 둔화,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 필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은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둔화되었으며 동남권의 수출도 전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남권의 대중남미 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2.5%에서 2009년 45.9%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 37.3%로 하락하였다.

동남권 수출 비중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 해운업황 침체에 따른 선박수출 부진에 주로 기인한다. 선박은 동남권의 대중남미 수출품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동남권의 대중남미 수출액중 44.9%가 편의치적국(파나마, 케이만군도,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 대한 선박수출로 파악됐다.³⁾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일반적으로 선주는 세금 절감 및 외국인 고용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제3국인 편의치적국에 등록하는데 수출 통계에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고 있다.

중남미 상위 10개국 수입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2013년 기준)은 미국이 31.4%로 1위, 중국은 15.9%로 2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은 3.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국가별로는 브라질에서 6위(4.0%), 멕시코에서 4위(3.5%) 등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동남권 수출은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신흥 3국에서 다소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브라질 멕시코 등 2대 강국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수출의 중남미 시장점유율은 미국시장 점유율(2.8%)에 비해 다소 높지만 중국(11.3%), 베트남(17.3%) 등 아시아 주요 신흥국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중남미 10대 국가 수입시장 점유율

(%)

구 분	1위	2위	3위	한국	한국 수출중 동남권 비중
브라질	중국 (15.6)	미국 (15.1)	아르헨티나 (6.9)	6위 (4.0)	19.8
멕시코	미국 (49.1)	중국 (16.1)	일본 (4.5)	4위 (3.5)	13.6
아르헨티나	브라질 (26.1)	중국 (15.4)	미국 (11.0)	13위 (1.7)	21.5
콜롬비아	미국 (27.7)	중국 (17.4)	멕시코 (9.3)	9위 (2.2)	32.7
칠레	미국 (20.3)	중국 (19.7)	브라질 (6.5)	6위 (3.5)	34.1
베네수엘라	미국 (28.1)	중국 (12.9)	브라질 (10.3)	18위 (0.9)	12.8
페루	미국 (20.2)	중국 (19.2)	브라질 (5.4)	7위 (3.6)	28.6
에콰도르	미국 (29.1)	중국 (12.9)	콜롬비아 (8.5)	6위 (3.8)	26.5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39.2)	중국 (10.7)	베네수엘라 (6.3)	15위 (1.4)	32.6
과테말라	미국 (37.2)	멕시코 (10.6)	중국 (8.2)	8위 (2.3)	29.4

주 : 2013년 기준, ()는 각국 수출의 중남미 시장점유율

자료 : IMF, 한국무역통계

자동차부품 및 해양플랜트 수출 성장세 주목

2000~2014년중 동남권의 중남미 10대 수출품목(상위 10개국 기준)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먼저 2000년에 2위를 차지했던 전자관은 아날로그 TV의 핵심부품이었으나 디지털 TV의 등장으로 순위에서 밀려났다. 3위를 기록했던 냉장고는 중국 일본 등과 백색가전 분야의 경쟁심화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며, 5위에 있던 가정용회전기기는 녹음기 음성재생기 VTR 등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순위에서 제외됐다.

현재 동남권의 중남미 수출품 1위는 자동차, 3위는 자동차부품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현대자동차가 현지공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많이 조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편의치적국 선박 수출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위 자리를 차지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울산에서 멕시코로 수출한 시추선 등으로 파악되었고 4위 원동기 및 펌프는 브라질 멕시코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중남미 10대 수출품목 변화

(천달러)

순위	2000년	수출액	2014년	수출액
1	자동차	341,762	자동차	1,483,880
2	전자관	190,36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168,099
3	냉장고	57,078	자동차부품	868,943
4	석유제품	55,725	원동기및펌프	347,059
5	가정용회전기기	52,923	합성수지	244,936
6	합성수지	48,622	석유제품	190,059
7	난방및전열기기	44,116	건설광산기계	172,470
8	고무제품	44,013	철강판	150,860
9	섬유및화학기계	31,541	기타석유화학제품	127,829
10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27,737	정밀화학원료	122,173

주 : 상위 10개국(편의치적국 제외),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통계

국가별 수출품 순위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브라질은 자동차부품, 멕시코는 선박 해양구조물, 콜롬비아 칠레 페루는 모두 자동차가 1위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중남미 자동차 시장 및 해양플랜트 산업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시장 개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남권의 국가별 5대 수출품목 변화

(천달러)

구 분	순위	2000년	수출액	2014년	수출액
브라질	1	전자관	71,324	자동차부품	507,989
	2	자동차	31,978	자동차	219,086
	3	석유제품	31,205	원동기및펌프	173,578
	4	합성수지	25,730	석유제품	111,332
	5	고무제품	20,161	건설광산기계	74,792
멕시코	1	전자관	118,88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079,641
	2	자동차	67,372	자동차	337,484
	3	냉장고	36,627	자동차부품	220,078
	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084	원동기및펌프	108,935
	5	섬유및화학기계	21,427	철강판	91,971
콜롬비아	1	자동차	24,730	자동차	138,342
	2	가정용회전기기	3,040	자동차부품	82,430
	3	합성수지	1,866	합성수지	33,824
	4	고무제품	1,42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1,920
	5	냉장고	1,340	섬유및화학기계	18,623
칠레	1	자동차	102,747	자동차	374,956
	2	가정용회전기기	13,515	합성수지	59,856
	3	석유제품	9,403	석유제품	35,477
	4	합성수지	5,144	정전기기	25,264
	5	냉장고	4,454	동제품	19,093
페루	1	석유제품	7,569	자동차	221,901
	2	자동차	5,407	항공기및부품	83,923
	3	고무제품	4,728	합성수지	45,569
	4	냉장고	3,287	정밀화학원료	30,466
	5	건설광산기계	1,961	철강판	16,105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통계

적극적인 FTA 활용 및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들과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s)을 추진했다. 한국의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공식 발효된 이후 한-페루 FTA가 2011년 8월 발효되었고 한-콜롬비아 FTA는 금년 상반기 발효 예정에 있다.

또한 협상이 중단되었던 한-멕시코 FTA의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중미 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TA 등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기업들은 중남미 국가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에서는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중남미 FTA 추진 현황

구 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 고
발 효	칠레 FTA	2004년 4월 발효	-
	페루 FTA	2011년 8월 발효	-
서명·타결	콜롬비아 FTA	2012년 6월 협상 타결	2015년 상반기 발효 예정
협상여건 조성	콜롬비아 FTA	2007년 12월 협상 개시 2008년 6월 협상 중단	2012년 6월 양국 정상간 협상 재개 합의
추진검토	FTAAP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로드맵 채택	2016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공동연구 진행
	중미 FTA	2011년 4월 공동연구 완료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협의
	MERCOSUR TA	2009년 7월 한·MERCOSUR TA(Trade Agreement) 추진협의 MOU 체결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6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협의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한편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교역관계는 FTA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현지시장에 대한 동남권 지역의 해외직접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중남미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56억 달러(총 누계 기준)로 전 세계 투자금액에서 9.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아(42.5%) 북미(23.5%) 유럽(17.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동남권의 중남미 투자규모는 9억 2천만 달러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중남미 투자액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남권의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전국대비 투자 비중이 각각 4.6%, 4.1%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미하다.⁴⁾ 따라서 동남권 기업의 중남미 현지투자 및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대 강국뿐 아니라 신흥 3국을 중심으로 투자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동남권의 중남미 10대 국가 해외투자 현황

(천달러, %)

구 분	전국(A)	동남권(B)	비중(B/A)
브라질	5,820,989	269,635	4.6
멕시코	3,108,902	125,940	4.1
페루	1,548,858	724	0.0
칠레	367,328	1,504	0.4
콜롬비아	299,692	1,060	0.4
아르헨티나	182,380	17,554	9.6
과테말라	113,768	1,530	1.3
베네수엘라	66,882	60	0.1
에콰도르	39,607	412	1.0
도미니카공화국	4,222	31	0.7
중남미 전체	25,652,266	918,867	3.6

주 : 투자금액(2014년까지 총 누계)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4) 아르헨티나에 대한 전국대비 투자비중이 9.6%로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투자실적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부산지역의 아르헨티나 투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교류 증진 및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아미고(Amigo) 관계 구축

2014년말 우리나라의 중남미 등록외국인 수는 상위 10개국 기준으로 2,113명이며 전체 등록외국인 수(1,091,531명)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동남권에 등록되어 있는 중남미 외국인 수는 348명으로 전국의 16.5%로 집계되었고 국적별로는 브라질이 가장 많고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10개국 등록외국인 현황

(명, %)

구 분	전국(A)	동남권(B)	비중(B/A)
브라질	694	164	23.6
멕시코	409	37	9.0
페루	252	34	13.5
콜롬비아	218	41	18.8
에콰도르	135	5	3.7
베네수엘라	90	28	31.1
과테말라	89	1	1.1
아르헨티나	89	15	16.9
칠레	82	18	22.0
파라과이	55	5	9.1
합계	2,113	348	16.5

주 : 상위 10개국, 2014년말 기준

자료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중남미 등록외국인 수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멀고 언어 및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지만 중남미 출신들이 사업 유학 근로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 또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 외국인들의 국내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인적교류의 양적 · 질적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상호 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양적 측면에서의 인적교류가 이에 상응하는 규모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남미 지역 전문가 양성, 상호 유학생 교류 및 근로자 채용 확대, 기업 투자확대 및 거래관계 활성화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 측면에서는 사회·문화적 인적교류 증진이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중남미 한류 열풍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칠레의 한국 교민들에 의해서 전파된 한류는 인근에 위치한 페루, 아르헨티나 등을 넘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에만 중남미 각국에서 240여개의 한류 동호회가 신설되었고 동호 인구도 10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적으로 중남미 사람들은 인간적 친밀감 또는 유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간 비즈니스 세계에서조차 영리보다 ‘아미고(Amigo)’ 즉 친구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류에서 비롯된 한국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신뢰와 우정을 쌓아간다면 중남미 국가와의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 주요 국가의 한류 동호회 현황

(개, 명)

구 분		중남미	(페루)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동호회	2013년	421	55	7	70	20
	2014년	661	124	79	78	22
	증감	240	69	72	8	2
동호 인구	2013년	398,630	45,095	27,723	55,370	9,602
	2014년	1,425,566	420,946	384,234	146,017	136,059
	증감	1,026,936	375,851	356,511	90,647	126,457

자료 :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자체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노력 중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자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남미 주요 국가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왔다. 부산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멕시코 티후아나, 칠레 발파라이소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경남도 및 창원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의 지자체, 또 울산은 브라질 우루과이 등의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권 지자체와 중남미 도시간 실질적 협력 및 교류활동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칠레를 제외하면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신흥국가와의 공식적인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권의 중남미 자매도시 교류 현황

구 분	국가	도시	결연일자	비고
부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1985년 9월	
	멕시코	티후아나	1995년 1월	
	칠레	발파라이소	1999년 1월	
경남	칠레	발파라이소주 비나델마르시	1983년 2월	창원시
	멕시코	할리소주 자뽀싼시	1987년 6월	창원시
	멕시코	할리스코주	1997년 3월	
울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2009년 10월	우호교류결연
	브라질	산토스시	2002년 6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012년 6월	우호협력도시

자료 : 각 시도 홈페이지

한편 우리나라보다 앞서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일본의 경우 지자체간 다양한 교류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지자체국제화협회(自治体国際化協会)에 따르면 일본과 중남미 지자체간 교류사업은 경제, 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의료 등의 세부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인적교류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남권 지자체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중남미 도시와의 교류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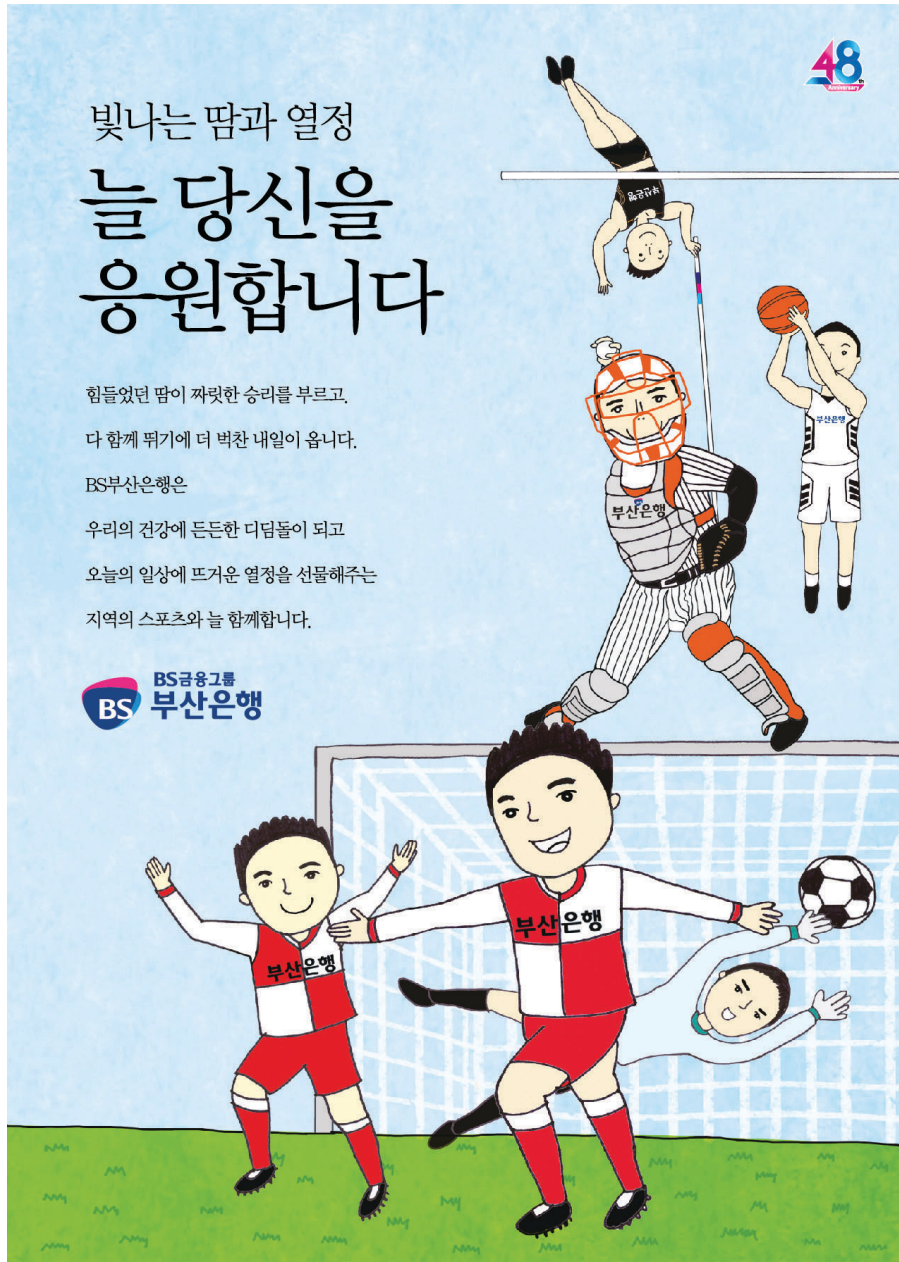
일본과 중남미 지자체의 교류 사례

중남미	일본	국제교류 내용
멕시코 게레로주	미야기현 센다이시	국제자매 교류도시인 게레로주에서 제22회 센다이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선수단을 파견, 대회 참가 및 시민과의 교류회를 개최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이치현 나고야시	일본 멕시코학원의 교원 및 학생 모집, 멕시코 사진전 개최, 마야고대 유적사진전 및 일본 보물전의 상호개최, 각종 축제 참가 등 활발한 교류 시행
멕시코 하리스코주	교토후 교토시	9개의 자매도시로부터 청소년을 초대해 환경을 주제로 한 청소년미래환경회의 2012 in 교토를 개최, 워크숍 및 의견교환, 문화체험 등의 국제교류를 시행
브라질 상파울로주	니이가타현 미쓰케시	국제협력기구(JICA) 기술협력사업으로 방재담당직원이 일본을 방문, 방재훈련 시찰 및 연수 시행
브라질 상파울로주	토야마현	제35회 토야마현 종합페스티벌 및 아동페스티벌에 해외예술문화단체의 국제교류공연 등을 시행
브라질 상파울로주 이비우나시	미야자키현	이비우나시 최대축제인 산세바스천 축제에 초대받아 일본 관계자가 브라질을 방문, 축제 참가 및 자매도시체결 25주년 기념식 등을 시행
브라질 상파울로주 캄피나스시	기후현 기후시	기후시중학교 체육연맹이 선발축구팀21명을 캄피나스시에 파견, 축구를 통한 청소년 교류 및 현지일본인과의 교류회를 통해 국제교류 증진
브라질 파라나주	효고현	농업에 관심이 많은 일본의 고등학생, 농업대학생들이 세계농업생산을 주도하는 파라나주를 방문해 선진적 농업생산방식을 실습 및 시찰
파라과이 라콜메나시	카가와현	JICA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전문가를 파라과이로 파견, 기계를 활용한 농업기술의 지도 및 조언, 농산물 판매교류회 등을 개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치바현 치바시	파라과이공화국 독립200주년 및 치바시 90주년을 맞아 스페셜알파콘서트를 개최, 파라과이측 방문단 및 주일본 파라과이대사도 참석
페루 후닌	홋카이도	페루공화국 친선방문을 비롯해 사진전, 요리교실, 우호 골프대회 등 정치, 문화 및 스포츠 부문에서 다양한 교류 시행

자료 : 일본 지자체국제화협회(自治体国際化協会) 등

빛나는 땀과 열정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들었던 땀이 짜릿한 승리를 부르고,
다 함께 뛰기에 더 벅찬 내일이 옵니다.
BS부산은행은
우리의 건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오늘의 일상에 뜨거운 열정을 선물해주는
지역의 스포츠와 늘 함께합니다.



BS 금융그룹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S금융지주 (www.bsfnn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S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sfnng.com

BS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S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